

와이브로/HSDPA 전망 ① 와이브로

2006년은 와이브로 원년

KT-SKT 중반 상용서비스 제공 ‘보완재?’ 성격 놓고 사업주체 신경전

2006년 상반기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동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의 등장은 향후 통신시장 패턴을 바꿀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 와이맥스 표준 확정으로 사실상 휴대인터넷 분야에서 비교대상이 없는 와이브로는 해외에서 더욱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글 | 심우성 기자(아이티타임스, wsung@itn.co.kr)



지난 12월 7일 모바일 와이맥스(WiMAX) 표준(IEEE 802.16e)이 공식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 표준의 근간을 이루는 국내 와이브로의 해외진출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와이맥스 포럼은 와이브로의 핵심기술들을 기술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이런 사양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와이브로 기술을 세계 각 나라의 휴대인터넷 장비 및 단말기가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와이브로는 이미 All-IP 기반이면서 MIMO와 OFDMA 등 4세대(4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들을 대거 수용했고, 모바일 VoIP라는 4G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와이브로는 3.5G가 아니라 3.9G라고까지 불린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KT나 SK텔레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장비 및 단말기를 개발한 삼성전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삼성 '전사적'... SKT 'HSDPA 보완재'

KT의 경우 와이브로를 통해 기존 유선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 유무선 통합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T는 향후 무선데이터 시장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다. 매출액 기준 매년 20%~40% 수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4년 3조원 규모에서 오는 2008년에는 현재의 유선데이터 시장과 비슷한 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의 경우, 2011년까지 가입자가 800만~10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 될 경우 시장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가 좋은 비교사례. 2004~2005년 가입자 규모를 1200만 정도로 예상했으나, 뚜렷한 시장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실제 가입자는 무려 3600만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KT는 지난 2002년부터 와이브로 기술개발을 착실히 진행해 세계 최초로 휴대인터넷용 무선망 설계 툴을 개발했다. 나아가 국내 최초로 TDD 중계기도 개발, 국내 표준화를 주도하면서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부의 휴대인터넷 사업자 심사에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을 제치고 당당하게 1위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배경으로 KT는 2010년까지 가입자수 311만명, 가입자당매출(ARPU) 3만3000원, 당해 매출 1조 2000억원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시험장비를 공급한 미국·영국·일본·남미·이탈리아 외에 올해 10여개 나라에서 와이브로를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야흐로 와이브로가 본격적인 세계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19일 베네수엘라의 케이블방송 사업자 유니비전과 상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 중인 나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니비전에 와이브로 장비와 단말기를 비롯한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운영 관련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오는 2/4분기 HSDPA 상용서비스에 돌입하는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와 같은 시기에 상용화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재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투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와이브로에 약 8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 교환국, 전송망 설비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절반이상의 투자절감을 이룬 것만큼 회사측 설명.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단말기와 모바일 초고속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며,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를 통해 이동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외에도 메시징, 영상/음악, 게임, 위치기반 서비스 등 정보서비스에 B2B, M2M 솔루션과 같은 Biz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박재운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사업전략부장은 "KT는 와이브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가올 모바일 컨버전스시대를 선점할 것"이라며 "와이브로가 KT뿐만 아니라 국내 IT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

